

[ 사회 ]

■ 전국체전 제패 노리는 광주 북구청 검도팀



제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팀 선수들이 서석고 대강당에서 죽도(竹刀)를 한데 모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一刀마다 화합·승리의 '기합'

햇살이 쏟아지는 통에 상대방의 눈을 볼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 한발 왼쪽으로 두발 움직여 보지만, 상대는 집요하게 죽도(竹刀) 끝을 내 목에 들어댄다. "하나-아, 두-울, 셋!" 막 속으로 크게 세 번을 세고 상대의 가슴으로 파고든다. "머리-이-!" "파악" 하는 타격음과 함께 '한 판'이 끝났다.
지난 5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 대강당은 광주시 북구청 소속 검도팀 선수 8명이 외치는 기합소리로 가득했다.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는 '호면'(護面)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선수들의 눈빛에서 녹록지 않은 내공이 묻어난다.
"10분간 휴식" 양진석(36) 코치가 호투라기를 붙자 '8인의 검객'은 호면을 벗고 한자리에 모인 다.
이진석(34), 오길현(28), 임동혁(27), 박상수(30), 김현(26), 김태호(34), 김동욱(26), 문성복(31). 대학시절 전국대회 단체전·개인전 등에서 수차례 우승했던 검도계의 강자들이다.
"길이는 치고 들어갈 때 한 템포 빨리 움직여야, 동력은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냐?"
호랑이 같은 양 코치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자상한 만행으로 돌아가 선수 개개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해준다. 고개를 끄덕이는 선수들의 눈에 양 코치에 대한 '신뢰'가 엿보인다.
/이종행 기자 glee@kwangju.co.kr

하지만 이들은 불과 2년 여 전까지만 해도 칼끝을 서로에게 겨누는 사이였다. 광주 검도계는 본래 서석고-조선대-북구청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북구청 감독의 선수단 운용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지역 유망주들이 북구청 입단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은 끝에 광주 검도계는 '북구청팀'과 '서석고OB팀'으로 나뉘었다.
북구청 검도팀은 지난 2004~2005년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한 술밥을 먹었던 선수들끼리 등을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연이은 전국체전 무득점, 유망주들의 타지역 실업팀 입단 등 광주검도가 위기상황에 내몰리자 다시 뭉쳤다.
지난해 1월 오길현 등 서석고 소속 선수들이 북구청 검도팀에 합류한 것이다.
재기를 노리며 전국체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이날 서석고 강당에서 친안시청, 대구 달서구청팀과 잇따라 연습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북구청팀의 전승.
양진석 코치는 "죽도독 훈련하고, 서로 쟁겨주며 한식구가 됐다"며 "3년 만에 출전하는 전국체전인 만큼 금메달을 꼭 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lee@kwangju.co.kr

갈등 통합하고 3년만에 출전

잇단 연습경기 전승 상승세

"금메달 꼭 따 명성 되찾겠다"

전남대 8~12일 수시2 인터넷 접수

전남대학교는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admission.chonnam.ac.kr)를 통해 수시2 학과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전남대가 2학기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은 전체 정원 5천187명의 50%인 2천592명(광주캠퍼스 2천

52명·여수캠퍼스 540명)으로 지난해(40%)에 비해 10% p 늘었다.
학생부 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자를 다음달 16일 발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20일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16일 발표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체전 개막 3일간 비 온다

태풍 '크로사' 영향 오늘 30~120mm 비

광주·전남지역이 제 15호 태풍 '크로사'(KROSA)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88회 전국체육대회(8~14일) 사흘째인 10일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제15호 태풍 크로사가 북상하면서 10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체전 개막날인 8일에는 태풍 전면에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캄보디아어로 학을 뜻하는 '크로사'는 7일 오후 4시 현재 ▲순간최대풍속 32m ▲강풍반경 420km 중형급 태풍으로, 중국 상하이 남쪽 500km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태풍은 10일 오후께 서력이 크게 약화돼 상하이 동쪽 410km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지역은 11일부터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상청 관계자는 "11일부터 체전 폐막날인 14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다"며 "기온은 평년 기온(최저기온 7~15도·최고기온 21~23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태풍이 몰고 온 비 10월 8일 (음 8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비 16~20°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5~20°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6~20°C, 호리고비 17~20°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5~20°C, 호리고비 18~19°C
서울: 흐리고비 16~20°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5~20°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6~20°C, 호리고비 17~20°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5~20°C, 호리고비 18~19°C
제주: 흐리고비 16~20°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8~21°C, 호리고비 15~20°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6~20°C, 호리고비 17~20°C, 호리고비 17~21°C, 호리고비 15~20°C, 호리고비 18~19°C

체전 개·폐회식 무료 셔틀버스 운행

광주시는 제88회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관람하는 시민과 외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개회식이 열리는 8일 오후 1시~6시40분에 20분 간격으로, 폐회식이 열리는 14일은 오후 1시~6시에 3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세부 운행 노선은 전국체전 인터넷 홈페이지(88sports.gwang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각 노선 주요 경유지.
▲순정코스=순정서초교~순정리
▲순정코스=순정서초교~순정리
▲순정코스=순정서초교~순정리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월드컵경기장서 '화려한 휴가' 상영

광주시는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를 오는 9일 상영키로 했다.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치르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다.
상영은 체전 이틀째인 9일. 이날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설치된 가로 88m, 세로 23m의 초대형 스크린을 이용한다.
상영 전에 박람회 광주시장과 김지훈 감독 등 영화 제작진이 서로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도 갖는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안성기, 김상경, 이요원, 이준기 등이 출연했으며 730만명이 관람해 흥행에 성공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체전"으로 치르려는 뜻에서 영화 '화려한 휴가'를 상영키로 했다"며 "문화도시·인권도시 광주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장애 학생 722명 특수교육 못받아

수혜율 72%로 하위권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말해주는 특수교육 수혜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광주는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수혜율은 특수교육 수혜학생수에서 장애인 수로 높을수록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비례대표·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수혜율은 72.6%로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울산(68.5%)에 이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의 장애학생 추정수는 2천630명이며, 특수교육 수혜학생수는 1명 908명으로 722명 가량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117.7%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충북(117.4%), 전남(107%), 제주(103.1%)가 있었다.
이 의원은 또 지역별 특수교육 예산이 1위(울산·1인당 2천3만9천원)와 꼴찌(인천·1인당 9백18만5천)의 차이가 배 이상이라며 지자체간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 예산은 1천195만1천원, 1천519만6천원 등으로 각각 13위, 7위를 차지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 교육부 거부 무산

소규모학교 교사의 행정·관리 업무 부담 증가와 승진 기회 축소로 인한 사기 저하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했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계획이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급 이하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감 정원배정 방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감들은 행정업무 및 학교 관리 업무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교원의 승진 기회 축소로 사기가 떨어진다며 지난 달 협의회 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면 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원 인력관리에도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 21일 파이널특강 3주 완성 개강 10월 1일 "출제유형별 핵심요약 및 실전대비 최종정리"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첨단점 971-0002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영세자영업자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3개월 11월 1일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0월 15일
CAD 2개월 10월 22일
재직자 및 일반인 MOS(Master) 2개월 10월 15일
정보통신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화 기초1,2 5주 매월 초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11월 11일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현대 직업 전문 학교
동부경찰서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한빛공무원학원 관내 후문 부경길 건너편 ☎234-0234